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지난 7월 5일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농림부와 농협 공동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전국 지역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공무원,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이상철 팀장이 지난 6월 14일 확정·발표된 자연순환농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국대학교 윤성이 교수가 지역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지는 등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이용할 때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과 경종농업의 경제적인 이점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지역에서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퇴비 액비를 이용한 영농사례 등이 발표되어 강원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김창수 지도사의 철원군 퇴·액비 활용 영농지도 사례와 파주축협 박재환

팀장의 파주시 자연순환농업 실천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철원군 김창수 지도사는 지난 99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철원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에 대해 설명하며, 철원군내 전체 10,810ha의 농지중 약 10%에 해당하는 996ha의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서울대 노희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림부 이상철 자연순환농업팀장, 동국대 윤성이 교수, 철원농업기술센터 김창수 지도사, 파주축협 박재환 팀장, 도드람양돈조합 진길부 조합장 등이 참여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관련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양원**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지난 6월 30일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주관,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주최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6월 30일 수원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소장 윤진하) 대강당에서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회장 오인환·건국대) 주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충남대) 주최로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6년 하계 심포지엄이 있었다.

축산기자재시장 농기계시장 앞서

이날 오인환 건국대 교수는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 축산기자재의 시장이 2002년부터 매출액 대비 농기계 시장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축산기자재 8천2백95억원인 반면에 농기계 매출은 6천4백45억원에 불과해 농기계 대비 1백29%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기자재 산업 역시 축산업이 농기계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희 경산대학 교수는 축산기자재 산업은 업종의 전문화와 분업화유도로 전문기술 축적과 대외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생산제품의 규격화, 검사제도 도입으로 품질보증을 통한 서비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소득증대·축산기자재 연계 필요

한편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서울대 최홍림 교수는 최근 돼지 소모성질병이 심각한 문제라며, "질병은 수의학, 사료, 환경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축산기자재 발달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까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연구소 권두중 연구관은 "축산 발전과정에서 축산기자재도 발전되어 왔다"며 "이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축사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보급하고, 축종별로 시설에 대한 표준화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지대 김동균 교수는 "축사환경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준**